

2008년

2월 1일

제 70 호

KBS

社友會報

社友會 目標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김은구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733-2189, 732-8159/ 팩스 (02) 3210-1449



KBS인물역사, 제주·미주지회 개설 등 '08년 사업·예산승인-이사회

한국방송공사 사우회는 2008년 정기총회를 2월 15일 오전 11시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에서 개최한다고 2월 1일 공고했다. 이사회는 1월 29일 2007년 수지 결산(안)과 전년보다 1.2% 증가한 2억 6백여만원의 2008년도 수지 예산(안)을 총회에 올렸다. 그리고 이사회는 '08년 사업추진 방향으로 ▲지회 조직의 확장 활성화 ▲연구기능 설치 지원 ▲운영 재원 안정 대책 추진 ▲KBS 인물역사 기록사업 등을 승인했다.

지회추천 지역국 시청자 위원 5명 위촉

KBS지회가 추천한 KBS 지역국 시청자위원 후보 중 모두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회가 12월 말까지 모두 12명의 지역국 시청자위원을 추천했으나, 지역국이 시청자위원 전원 유임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위촉율이 저조했다. 그리고 지회와 지역국간의 충분한 협의가 아쉬웠던 것이 또하나의 위촉률 저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국 시청자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사진)



울산/이근우 포항/김삼일 전주/진규현 대전/심혁재 강릉/이연근

발전기금 기탁



남승자 30만원 이태진 10만원

사우회 발전 기금이 답지고 있다. 남승자 이사가 1월 21일 30만원을 쾌척하고, 이태진 창원지회장이 1월 22일 "사우회 발전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며 1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조창화 대한언론인회장 선출

중견 언론인의 모임인 (사)대한언론인회 총회는 1월 25일 조창화 회우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08~'09년이다.

여맥회 총회, 이휘 신임 회장

KBS 중견 보도직 출신의 모임인 여맥회는 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이휘 회우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 부회장 / 심재일 윤기호 이용기 ▲ 감사 / 강명수 ▲ 총무 / 박춘병 문인수 이철영

'07년 신입회우 명단 별책으로 발송

사우회 사무국은 07~08년 신입회우 명단은 별책으로, 주소가 변경된 회우들은 자료철로 각각 제작, 회우들에게 2월 회보와 함께 발송했다. 회원 수첩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내년에 제작하기로 했다.

'08년 총회자료 개별송부 안해

사우회 사무국은 1월 24일 '08년 정기총회 관련자료를 사우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우 개별에게는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가 필요한 회우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총회 당일 자료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회우들은 해당 지회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무국은 2월 5일 지회에 5부씩 총회자료를 보냈다.

2008년도 정기총회 공고

본회 정관 제 16조 2항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총회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 송부는 하지 않습니다. ▲ 일시 : 2008년 2월 15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KBS 신관 라디오 공개홀 ▲ 안건 : ① 2007년도 수지 결산(안) ②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회장 김은구

신입 회우 환영합니다

- 김대우 / 300-020, 대전 동구 인동 현대④ 110-505 (010-3099-3767)
- 김동진 / 137-797,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2차④ 106-1205 (02-534-0632, 019-279-0632) dongjk@hanmail.net
- 김익추 / 152-090,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6 한마을④ 105-1903 (02-2682-4518, 011-720-4518) kimikchoo@hanmail.net
- 김인석 / 217-809, 강원 속초시 동명동 450-52 (033-631-3131, 010-5198-3735)
- 김진호 / 215-811,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911-4 (033-633-4215, 011-369-0239)
- 김한진 / 701-804, 대구 동구 방촌동 1102-2 강변④ 108-110 (053-984-4154, 018-525-4145)
- 박상수 / 157-28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 힐스테이트 133-701 (02-6093-0823, 011-313-0823) soosp5@hanmail.net
- 박재영 / 137-797,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④ 103-801 (02-596-6865, 010-6656-6864) pjy@kbs.co.kr
- 배덕환 / 137-044, 서울 서초구 반포4동 107-66 (502호) (02-546-8824, 010-9005-4495)
- 손기식 / 706-851, 대구 수성구 황금1동 254-1 신천지하이츠 303-1003 (053-761-8024, 011-813-8024) ksson@kbs.co.kr
- 손정호 /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6-11 현대슈퍼빌 C-1706 (02-305-5238, 011-305-5238) sohnjh@kbs.co.kr
- 유성화 / 137-049,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④ 94-104 (02-591-2925, 017-269-2917) hlirf@yahoo.co.kr
- 윤재홍 / 413-841, 경기 과천시 탄현면 법흥리 497-114 (031-943-7667, 011-268-9160) (주)세미르워크 대표 ysayoon@hanmail.net
- 윤주대 / 706-020,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11-7 그린빌라 C동 301호 (053-753-3839, 011-9579-3831)
- 이창수 /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산 111-5 (033-632-6868, 010-9865-6869)
- 임종기 / 151-080,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 르메이에르 강남타운 1차 403 (02-584-4555, 011-708-5206) limjg@kbs.co.kr
- 임태문 / 701-015, 대구 동구 신암5동 청기와④ 106-101 (053-952-7174, 011-517-7377)
- 장경훈 / 702-053, 대구 북구 침산3동 동아 무지개④ 106-1603 (053-341-7529, 011-539-7529) jkhoon@kbs.co.kr
- 전봉찬 / 151-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103-1704 (02-6671-1139, 011-9120-0311)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KBS 88체육관 평생교육원 (☎ 02-2600-8808)

종 목	강 습 시 간	강 습 요 일	강 습 료
수 영	06:00 ~ 21:00	월수금/화목토	75,000원
헬 스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60,000원
골 프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180,000원
수영패키지 (수영+헬스)			85,000원
골프 패키지 (골프+수영+헬스)			220,000원

기타종목 : 볼링, 탁구,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스킨스쿠버, 포켓볼, 스포츠댄스, 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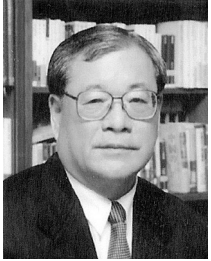
- 제천88체육관 평생교육센터(043-651-8855)
- 수영, 헬스, 골프, 스쿼시, 요가, 아쿠아로빅, 복싱다이어트
- 목포88체육관 평생교육센터(☎ 061-284-8801)
- 수영, 헬스, 라켓볼,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아쿠아로빅, 요가 휘트니스
- 빛고을88체육관 평생교육센터(☎ 062-956-9701)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아쿠아로빅, 배드민턴, 유아체능단

건강한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사우 여러분의 건강을
KBS 88체육관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우 대 활 인 서 비 스		
사 원 및 퇴 직 사 원	본 인	30%
	가 족	10%

KBS 비즈니스
www.kbs88.co.kr

<문화산책> 28



이인홍

태안 원유오염 사건에 동원된 자원봉사자가 사상초유로 연 5백 만이나 되었다. 감동에 북받친

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래 하나도 없다. 방독복과 방독면으로 무장한 고스트를 세워놓고 '텔미(Tell Me)'를 부르는 동영상이 있었다. 그리고 '입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바꾸어 불렀다는 검은 눈물 흘리는 서해안'이 있었지만 5백만이 아니라 5백 명의 애창곡도 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지난 1997년 일본의 후쿠이(福井縣) 미쿠니(三國)해안이 기름에 덮였을 때 전국에서 모여든 연 30만의 봉사자가 2개월 반을 겨울바다와 사투하여 다시마 산지를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일본의 국민감동교재로 살아있다. '프로젝트 X'라는 NHK 프로그램이 되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태안에는 한참 못 미친 인원이었지만 봉사자의 조직적 동원과 관리, 방제자재의 공급과 회수, 작업을 위한 교육, 바위와 돌은 물론 모래알까지 걸레로 닦아내는 사투현장을 필자도 TV로 보았다. 그들이 인간교류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우리의 삶에는 고비마다 노래가 있었다. 일제 때 '두만강 푸른 물에' 민족의 비애를 씻고 '목포의 눈물'로

한 것 울었다.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을 노래하다가 김일성 남침으로 6·25 전화에 휘말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한 많은 미아리 고개'에 가로막혀 울고 또 울었다. 겨우 60년대 들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로 달려가 80년대에 '아 대한민국'을 환호하며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목이 터지도록 불렀다.

2000명 있었고, 2000건의 작전을 수행했으며 빨치산과 협조자 3만 명이 피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Anatoly Torkunov: The War in Korea. Its Origin, Bloodshed and Conclusion). 그런 일이 없었다면 70년대와 80년 90년대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은 '아- 대한민국'에 배 아파했다. 그래서 '이념노래로' 대항했다. 하나는 가사를 바꾼 '아- 대한민국', 다른 하나는 '어- 대한민국', 전자는

합창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대행위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러시아에도 국가(國歌)의 위력이 있는 모양이다. 1833년 니콜라이 1세가 '신이여 황제를 보호하소서'라는 국가를 제정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에 성공하자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국가로 하였다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바꾸었다. 그 뒤 정권을 장악한 스탈린이 1943년 소련국가를 만들었다. 스탈린이 사망하자 스탈린을 격하하는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번엔 소비에트를 붕괴시킨 엘친이 새로운 러시아국가를 만들었으나 푸틴이 대통령되면서 다시 새 국가를 만들었다. 러시아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권력은 국가를 끼고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음악의 힘은 또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화평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1월 12일 팔레스타인의 라마트라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갖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그의 음악은 신기다. 브람스의 소나타 F단조는 신기의 절정이다. 음악의 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적개심을 녹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테너 가수 아키가와(秋川雅史)의 '천(千)의 바람이 되어'가 태풍 같은 음악풍을 일으키고 있다. "내 무덤 앞에서는 울지 말아 주세요. 거기 나는 없습니다. 잠 같은 것 자지 않습니다. 천(千)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창공을 불어 닦고 있습니다..." 새 바람이 되어 노령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음악이 아쉽다. 태안에 음악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본회고문, KBS사장, 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音樂力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월 25일자 중간에서 일본의 93%가 일본 국민인 것을 명어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한민국을 환호했던 우리 국민도 그러했던 것 같다. 일본국민은 사회 안정과 치안과 국민성(각 28%) 보다 역사와 문화와 전통(72%)과 국토와 자연(43%)을 명어로 택했다. 우리도 역사와 전통, 경제적 성취와 올림픽,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아- 대한민국'으로 긍지를 폈다.

그러나 불우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한 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도,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고 '아침 이슬' 부르며 스스로 달렸다. 한국의 불행은 김일성이 한국을 삼키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공산주의자를 남한에 심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소련붕괴 후에 스티코프 주 조선 소련대사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김일성, 박헌영 면담록이 공개되었다. 1948년 현재 남한에는 남로당원 90만 명, 빨치산

"우리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아- 대한민국, 아- 저들의 공화국"으로 끝나고 후자는 "너무나 눈부셔 눈 한번 살짝 떠보니...내 기분 너무도 더럽다"로 끝난다. 이거야 저주를 뿌리는 주문(呪文)이 아닌가. 태안에서 가사를 바꿔 부른 노래 '입을 위한 행진곡'도 백기완씨의 시다. "...동지는 간 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5백만이 땀을 흘리는 사랑의 봉사장에 붉은 혁명의 깃발을 꽂자는 걸로 들린다. 지난 10여 년간의 좌익 정권 실패가 어쩌다 잘못된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다.

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광주유세장.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소란해지며 계란이 날아 왔다. 황금한 노 후보가 애국가를 불렀다. 힘찬 합창이 되었다. 그 순간 소란한 아유가 멈추고 물건 투척이 멎었다. 유세를 중단하고 후보가 철수했다. 애국가의 위력을 체험했다. 사상이 달라도 애국가를

회우여러분은 지금...

동정

- ◆ 김진기·서정수 등 /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박종길 회우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참사랑 노인의 집 (박회우가 원장 임)으로 신년인사차 방문
- ◆ 김호영 / 1월 15일자 조선일보에 'KBS의 마지막 기회' 제목의 컬럼 기고
- ◆ 문두하 / 경북 정보화 마을 정보화 지도자 대회는 1월 10일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대상을 받은 문두하 호미곶 마을 운영위원장에 경북 도지사 상을 수여
- ◆ 박중흠 / (사)신라총친연합회총본부 부총재에 취임(박씨, 경주김씨, 석씨 등 800만 총친회)
- ◆ 이보길(다음세계 사외이사) / 장녀인 성악가 이지민(메조 소프라노) 독창회가 1월 26일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열렸다. 이 양은 러시아·미국 등지에서 활약 중이며, 특히 9·11 2주기 추모집회에서 공식 독창자로 지명, 공연했다.

- ◆ 이청수(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사무총장) / 국제홍보협회(IPRA) 한국회장에 선출, IPRA는 1955년 UN경제사회사회의 자문기구로 런던에 본부가 위치
- ◆ 전봉찬 / 2월 11일 미국의 자녀 방문차 도미, 5월 귀국 예정.
- ◆ 허 환 / 12월 24일~1월 20일까지 호주 부르스번 총독부 한국담당국장 초청 한·호 유학생 교류 및 자매학교 선정에 대한 의견교환

자녀결혼

- ◆ 이대섭 / 아들(1/19)
- ◆ 이종문 / 딸(1/26)
- ◆ 류도희 / 딸(1/27)
- ◆ 정재철 / 아들 2월 16일 낮 2시 교직원 공제회관
- ◆ 이상욱 / 차남 3월 9일 낮3시 공항터미널 예식장

산수

- ◆ 전춘명 / 1월 1일
- ◆ 이춘명 / 1월 12일
- ◆ 이무근 / 1월 25일

희수

- ◆ 김재길 / 1월 5일
- ◆ 조양섭 / 1월 5일
- ◆ 윤태룡 / 1월 19일

고희

- ◆ 강영순 / 1월 20일
- ◆ 오중환 / 1월 23일
- ◆ 김영길 / 1월 25일
- ◆ 김 현 / 1월 25일

부음

- ◆ 송현식 / 모친상(1/14) (모친 홍은순 여사는 원로 아동문학가 임)

별세회우



이정석 회우가 1월 16일 저녁 7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조선일보 공채 1기 기자로 출발, 1963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동아방송(DBS) 뉴스부장을 거쳐 1971년 KBS에 입사, 뉴스부장, 보도국장을 거치면서 KBS뉴스부서의 발전 토대를 다졌다. 이후 런던 특파원, 미주 총국장, 서울올림픽 방송운영본부장, 기획조정실장, KBS방송제작단 사장(1972)을 끝으로 KBS를 떠났다. 그 후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체육훈장 백마

회비내신분

2006년/ 김진희	김학영	여태영	정재형		
2007년/ 김용대	김종성	김종교	김진희	김찬송	김춘빈
김학영	남승욱	민성동	여태영	이광로	이상수
이인철	이장우	이종문	이철호	정상록	최승민
2008년/ 고범중	권오범	권유호	김기준	김기철	김기후
김대우	김동진	김명선	김수동	김 영	김영세
김익추	김인석	김재익	김정진	김진호	김진희
김 학	김한진	김해곤	남승자	문종철	문 청
박기의	박만식	박상수(인원)	박영욱	박재영	박헌기
박형운	배갑용	배덕환	변원일	서근숙	서 승
손소진	손정호	송종국	송행복	양희선	오대환
오인모	오철환	왕경태	원창호	유성화	유의환
윤병찬	윤재흠	윤주대	이갑호	이광로	이기창
이양구	이용복	이인철	이장우	이재균	이종문
이창수	이철호	이한식	이해균	이 휘	임종기
장경훈	장병양	전봉찬	정인걸	정재철	정찬무
정화용	지기욱	지승표	지희하	진규현	채규화
최정용	한규현	허태호	홍갑준	홍준모	
2009년/ 김 영	배갑용	송병현	왕경태	이양구	이용복
정화용	조원석	허태호	2010년/ 허태호		

(07년 12월 18일~08년 1월 24일까지 회비접수분)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 010579-01-000329(우체국)

장 수상. 유족은 미망인과 2남 1녀.



송제남 회우가 1월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한국민사원

조처 행정보좌관, 공보실 서기관을 거쳐 서울 국제방송국 해외과장, 주독·주터키 공보관, 문공부 홍보조사연구소 연구관, KBS 국제 방송위원, 그리고 공연윤리위원회 상근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유족은 미망인과 1남 3녀.

사장은 독립 선임기구에서

오건환 (전 KBS 파리총국장)



KBS가 수신료만을
재원으로 하고 나아
가 2TV를 떼어 내
자는 등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장을 독립된 선임기구에서 선출함으로써 정치권에 의한 자의적 임명을 막아야 한다. **둘째**, 계선조직 이든 팀제이든 간 데스크 기능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효율적인 구조 개편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심의제도를 대폭 강화해 심의 결과가 다음 프로그램 제작의 방향이 돼야 하고 제작자 개인의 인사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넷째**, 현재와 같이 노조가 종업원의 복리 후생과 근로조건 개선이란 본질보다 인사와 경영 방송 제작 간섭, 정치적 편향성의 표출에 힘 쏟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노사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다섯째**, 과감하게 외부제작을 늘리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적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편성과 보도, 스포츠 기능 위주의 완전한 공영 방송 체제를 갖춘다. **여섯째**, 단기적으로는 과다출연료 지급을 줄이는

공공성 보장하는 KBS발전 방향 모색

KBS에 朔風과 寒雪이 몰아 닥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만큼 새봄의 약동을 그리는 기대치도 높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방송계의 큰변화에 KBS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이나 하는 문제가 굳건한 내일을 점령하는 계기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날의 시행착오와 비판은 다 접기로하자. 그것은 반성과 교훈의 자료가 삼으면 되는것 아니겠는가. 상황과 변화가 어떻게 되든 공영방송이란 KBS의 큰틀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속에서 KBS의 조직구성의 기본인 이사회 문제, 사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해서 운영의 방법문제까지도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일체화다. KBS 2TV의 문제등까지도 이리저리 손질을 하려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들 KBS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무엇일지 여미는 마음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위원회)

KBS 사원은 이에 대한 자질이 충분하고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다고 본다.

소유문제에 있어 KBS는 현재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다행히도 공영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많이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권력의 영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KBS를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귀속하거나 전 국민이 소유하는 체제로 전환시키고, 최고 경영자도 대통령 임명제를 지양한다면 공영방송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정권을 홍보해야 하는 부담도 없으며 임명권자나 권력자 눈치도 볼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누가 뭐래도 수신료가 되어야한다.

수신료가 흠결 없는 자원 제도는 아니나, 아직 이보다 발전된 자원은 없다. 그러므로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광고방송을 폐지 내지 극소화하여 광고주로부터 구속받을 소지를 없애면서, 방송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감히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제도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우선 최고 경영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부터 고쳐보자.

국민 소유의 체제로

이현원 (전 KBS 경영위원)



그동안 KBS는 공영 방송 본연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방송의 혜택을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제공치 못하였음을 반성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3대 요소를 소유, 자원, 프로그램으로 볼 때, 프로그램 공영성 지향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다.

방송 종사자의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로 가능하다.

등 대폭적인 제작비 인하가 필요하다. **일곱째**, 외부출연자를 엄선하고 내부인력을 활용함으로써 KBS의 공신력을 높이고 경영개선을 이룬다. **여덟째**, PD 제작 시스템을 개편해 이른바 방송작가에 의한 제작을 막아 정치편향적인 프로그램의 남발과 "PD가 출연하는...", "000PD의..."식의 프로그램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작보다 출연에 더 관심을 갖는 풍토를 제작자 자신들이 만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KBS 종사자의 공영방송에 대한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으로 모든 종사자의 철저한 재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KBS, 이전 제 위치 찾아야

이흥기 (KBS 지킴이 운영위원)



한국 민주화 역사 20년 동안 우리국민은 정부와 집권세력을 마음먹은 대로 선택하는 위대한 전통을 만들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진보 정권에서 실용정권으로 국운운성의 방향타를 현명하게 선택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방송 KBS는 여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KBS는 집권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KBS가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

KBS의 대외 이미지는 사장 선임이 60%, 이사와 시청자위원 선임이 10%, 방송내용이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KBS 사장은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후보자의 방송철학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 청문회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을 정비하여 국회 문공위원, 방송위원회든 검증을 통해 국민이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여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전개될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구조 개편, 수신료 현실화 과정에서 KBS는 2TV 분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KBS는 '깨어있는 공중'을 위한 방송과 함께 청소년과 젊은 세대, 여성층, 지역 주민, 소외 계층 등 다기 다양한 욕구와 열정, 흥취를 충족시키기 위해 2TV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일부 유력 신문의 방송 견해를 통한 미디어 재벌화 환상을 저지, 무산시키는데도 필수적이다. 또한 제작과 보도 과정에서 현행 팀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참직원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신참직원의 창의와 의욕을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증과 내용보완, 평가를 전담하는 자체 평가팀을 각 본부장 직속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방송협회법 만들어야

이흥주 (전 KBS 편성본부장)



정부가 100%투자하고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사는 국영 방송사다. 필요하면 언제나 감사원 감사를 발동시킬 수 있는 방송사는 국영방송사다.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에 1987년까지,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법에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받아 온 KBS는 못 국영기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회사는 정부의 힘 있는 부서들이 당연히 간섭하려 한다. 이것이 KBS에 불어오는 바람의 근본 원인이다. 이번에 KBS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길 바란다.

(가칭)공공방송협회법(또는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고 이 법에 의해 무자본 특수법인인 (가칭)공공방송협회로 변신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공공방송협회는 복수의 계열방송사를 운영하며 산업화되어가는 방송통신업계의 그린 존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화로 인한 방송통신업계의 산업논리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산업화의 부작용을 순화시키는 공공성 확산 및 유지 역할을 공공방송협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협회의 회장이나 계열사의 사장은 협회 경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임명한다. 경영위원은 국회에서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비 정치성 인물로 구성한다. 예산은 국회가 책임지고 방송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KBS내부위원들의 희생적 각오가 요청된다. 왜 하필 내가 재직하는 이때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하느냐는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와 시대의 소명을 이룩해 나간다는 사명감과 공공방송에 헌신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발휘해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KBS가 변신해 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모범적인 KBS 노조 돼야

홍수완 (전 KBS 기술본부장)



공영방송 KBS가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적자누적, 적자편성에, 외부적으로는 기술의 발달과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 변화에 따른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아직도 들려오는 정권의 나팔수, 편향 불공정과 방만한 경영의 문제 등은 KBS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KBS는 변화해야한다. KBS 스스로 주체가 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생존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공영방송이 광고방송을 계속해야 하는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동안의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미래지향적 도약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이다. KBS공영방송이 주인인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과 안정적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사회구성방법 등의 방송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체법과 공기업의 개정이 필요하다. 방송인들은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주인임을 더욱 명심해서 프로그램 제작과 업무에 임해야 한다. 최근 일본NHK 직원들이 방송하기전 특종뉴스내용을 토대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NHK 전체의 신뢰에 타격을 입고있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변화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폭력시위로 주인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었다. 처벌을 받아야 할 노조간부는 오히려 회사의 주요 보직에 보임되어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사태들은 정권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새 정부의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구호가 대환영을 받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어떤 노조보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조, 사회의 규범이 되는 노조, 회사의 발전을 위하는 노조가 되어주길 바란다.

방송 모니터

지난 연말 연시에도 KBS는 다양한 특집들과 시사기획, 탐사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였다. 특히 연말 타 채널들이 똑같이 매년 되풀이 하는 연예, 연기, 가요대상류의 대형 오락 프로그램들을 집중 편성하고 있는 시간대에 KBS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 방송한 수작 다큐 〈문명 대기화 인사이드 아시아 '차마고도'〉편을 과감하게 연속 재편성 (1TV 12.24~30일 저녁)해서 채널도 차별화하면서 채널 이미지도 올리고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과 우수한 프로그램의 재 시청기회를 갖게 한 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 편성이었다.

△ '괘도 흥길동' '대왕세종', 의욕적인 드라마 선보여

○...KBS는 새해 들어 수·목 드라마 '괘도 흥길동'과 주말 대하 드라마 '대왕 세종'을 의욕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프로그램 모두 '대조영' 등 KBS가 강세를 지켜 온 고전극 내지 사극류이지만 '괘도 흥길동'(2TV, 수·목 오후 9시 55분)의 경우 퓨전 사극을 표방하면서 또 다른 재미요소를 찾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줄거리 바탕은 허균 원작의 소설 흥길동에서 벌어졌지만 등장인물 설정이나 상황 전개와 처리, 심지어 대사나 의상 소품까지 구석구석 '현대'가 끼어들어 있는 판타지 극이다. 구성도 짜임새 있고 배

역도 무난하며 주인공들의 액션연기도 불만하다. 특히 주인공 흥길동 배역의 강지환의 액션 무술 연기와 격투 신 등에서의 특수효과들이 돋보인다. 단지 줄거리상으로 설정자체가 지나치게 우연이 많아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갈등구도를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재미는 더 할

他채널과 차별화 시킨 연말 편성 KBS채널 이미지 높여



오용근 회우 (전 한서대학교 교수)

수 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복잡하고 전개가 느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연기자들의 배역 소화도 대체로 무난한 편이나 남장 여인 허이녹 역의 성유리의 대사는 아직은 어색하다.

○...1월5일 첫 회가 방송된 주말 대하드라마 '대왕세종'(1TV 토·일 오후 9시 40분)은 대하드라마에 걸맞게 스케일도 크고 CG로 처리된 옛 배경의 복원이나 집단 격투신, 지붕을 타고 넘는 등의 특수 영상처리 등이 일품이다. 아직은 세종이 즉위한 충녕대군의 어린시절 이야기이지만(1~4회) 충녕과 양녕을 둘러싼 세력간의 갈등, 명나라와의 미묘한 자존심 싸움, 여기에 고려 복원을 노리는 비밀결사체의 등장 등 고조되는 긴장속에서, 등장 인물들간에 얽혀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애증 등이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며, 방대한 이야기의 구조속으로 시청자를 안내한다. 아역 충녕의 연기가 깜짝

하고 의젓하다.

△ '추적 60분' 설득력 있고 시의적절해

○... '추적 60분'(2TV, 수요일 밤 11시)은 1983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탐사 고발 프로그램이다. 1월 16일자 방송분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황당한 현실을 고발한 '한국 중소기업, 왜 그들은 야반도주 하는가?'편을 방송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6000여 개의 한국인 소유 중소기업 중 그 10%인 600여 개의 기업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심지어 산동성 옌타이 시에서는 종업원 3000여 명을 두고 섬유업체를 경영하던 한국인 사장과 종업원 등 10여명이 야반도주한 안타까운 사실 등을 현지 취재로 구성하면서 그 배경과 원인, 닥쳐오는 후유증들과 한중간 외교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직간접 책임문제와 해결책의 시급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아이템이 얼마나 시의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방송된 이튿날(1월17일) 아침, 대표적인 조간신문들이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앞 다퉈 사설(조선일보)과 칼럼(동아일보)등 후속 기사로 다룬 데서도 그 무게와 중요성

을 읽을 수 있었다.

△ 취재타임, 미디어포커스, 해명성 취급은 오해 소지있어

○... '취재파일 4321'(07.12.30. 1TV 일요일 밤 10시 40분)에서는 평생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고있는 '정녀'들의 이야기와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 가짜 유학생들의 실태를 고발한 '불법 유학, 검은 고리' 등이 방송되었다. 모두 어느 다큐멘터리 못지않게 구성이 치밀했고 화면 처리나 문제의식도 돋보였다. 특히 '나눔의 삶, 정녀'편은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

○... '미디어 포커스'(1TV, 1.12. 토요일 밤 10시30분)에서는 먼저 '이슈&비평' 코너에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취재현장에서의 취재윤리의 문제점들을 적절히 지적해 주었고 다음으로 '언론 정책, 격변인가 변화인가?'에서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면서 MBC민영화 관련발언 건, 신문법 내용 등을 보수와 진보측 입장에서 분석했고 말미에 정연주사장의 소위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의견하고 당당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신년사 내용을 취급했다.

해명 자체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굳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웠다.

*기사특주로 '요즘어떠세요'는 쉽니다.



△ 해여, 솟아라!

"아! 서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 은빛 물결치는 바다를 안고 유달 삼학도는 다도해를 거느리고... 지금 창을 열고 눈부신 태양을 운폼에 받고..."

"야, 미친 X야. 머시기 눈부신 태양 머시여! 서해에 머시 떴어! 야 이..."

주조정실에 걸려온 전화는 빗발치고 밖에는 진눈개비가 퍼붓고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사흘전 신출내기 담당제작자 시인과 술잔을 나누다 탄생한 명(?)신년시 테이프를 건넸고, 새해 아침 녹음 테이프는 돌아가고... "아, 과연 목포는 항구다!" 담당PD, 긴 한숨만. 때는 1981년 정월 초하루

△ '불조리', '쟁화'

5.16 군사혁명 공보처장관은 포병대령 출신 'ㅎ'씨 앞에서 방송인(PD, 기자, 아나운서)들은 교육을 받아야했다.

PD들을 향해 훈시를 하다가 "...여기 기자X들 없지? 썩끼들 관공서에서 오찌나..., 그게 바로 불조리야 불조리. 혁명 정부는 불조리를 없애고 사회 평화를 이룩하지는 것..."

"!??#?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장관 비서진이 써준 漢字가 주범(?)이었다. 不條理(불조리) 淨化(쟁화).

지방국장 'z'씨는 장관앞에서 보고할 때마다 '불조리' '쟁화'를 주문 외듯이 복창,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두분 다 고인이 되었다.

△ 취하고 또 취해서

1977년 본사 감사실 간부, 진돗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은근히 압력(?) '오'국장, 절호의 찬스를 놓칠수 있을까. 진돗개 수송에 현안이 되고... 수송 담당자는 용원 '남'씨. 강아지를 사과상자에 가득 자마자 끄꽂 끄꽂 오줌을 싸고,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 "거시기, 개는 똥주를 메겨노면 폭 잔단 말여. 끄꽂, 똥주를 메겨"

서울역까지 장장 네시간 반. 강아지 입을 벌리고 너 한 잔, 나 한 잔, 너 한 잔, 나 두 잔...

독한 삼학 소주 25도 세병이 깡술로 바다나고.. 강아지와 '남'씨는 종착역 서울역에서 단꿈을 꾸고...

△ 끄꽂마!

오전 10시대면 생활담당 생방송-법률상담. 읍단위 방송국이라 변호사도 없고 판사, 검사 한 명씩만 있던 시절, 검사 출연.

○검사: "다음 분 전화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상담자: "예, 기소중지잔데요..."

○검사: "말씀하세요"

○상담자: "저, 기소중지는 기한이 얼마입니까?"

○검사: "무슨 죄로 기소가 됐습니까?"

○상담자: "저... 거시기... 도... 도박..."

○검사: "선생, 당신! 박OO이제! 너 입마, 자수해 거기있어 끄꽂말고! 너..." 덜그럭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난 검사, 스튜디오 문 여닫는 소리와 함께 비상음악이 흐르고..

때는 1974년 여름, 상담자는 도박전과 5범. 새내기 검사는 강력검사로 이름을 떨치다 퇴직, 몇 년전 작고하였다는 소식.

김정숙/전주지회 편집위원

"이정석 선배님! 눈물이 납니다"

이정석 선배님, 거 형님은 그렇게 훌쩍 떠나길 좋아하십니까.

공영방송 보도 작업관 함께 하자며 사회문화 부장으로 잡아다놓고 어느 날 혼자서 하버드 대학으로 훌쩍 떠나버리시더니 이번에는 아주 세상을 훌쩍 떠나셨으니...

형님은 그렇게 미련도 없수. 아직 장가 안간 아들형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가시기 전날 많은 후배들이 모인 여맥회 신년모임에서 건강과 발전을 위한 건배를 힘찬 목소리로 선창하셨는데, 그리고 그날도 방송 원로들과 신년오찬을 하고 귀가 하셨다면...

보스턴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뵈었을 때 "이 사람아, 모자 똑바로 쓰시게..." "모자라뇨? 제가 무슨 모자를 써요?" "이 사람, 공영방송 모자 말일세" 공영방송 신언서관(身言書判)을 충고 하신 것이죠.

"이 사람아! 허허..." 하다가 세월 다 갔죠. 모질지를 못하셨어요.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한판 다투어야 했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형님, 그리 안했기 때문에 가시는 날까지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습시다.

위트와 유머와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기자적 센스는 귀재이셨죠. 신문기자 최초의 스킨노 단독회견 등은 지금까지 무슨 신화라도 되는 듯 전해지고, "미스터 프레

지던트!" 레이건과 마주 다리 꼬고 앉아 '버르장머리 없는' 방송 기자라는 소리 들었던시절도 있었죠..

1950년대 말인가, 한겨울의 어느 날. 조선일보 편집국 톱밥 난롯가, 마감시간을 마치고 둘러선 가운데 "사장님, 최근 미스 조가 달거리 불순인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정석" 월급이 제 날 짜를 못맞추는 걸 비유한 것을 알기에는 한참이 지나서였으셨지요. 그땐 참 모든게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었으셨습시다.

가시기 전날까지도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 BBC와 더 타임스, NBC와 뉴욕타임스, NHK와 아사히신문 등 전 세계 언론을 휘저으며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 어디서 누구를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을지요.

2008년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 만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인가의 위원장감이라고 추측했는데 말입니다.

형님, 이제 지면이 없다고 그만 쓰라니까 일단 이만 마쳐야겠는데요, 50년 세월 가까이 모시는 동안 많은걸 가르치고 이끌어 주셨던 숭한 이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님,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 먼저 가셨을 뿐인걸요. 편안한 세상에서 행복하십시오.

삼가 김은구가 드립니다.